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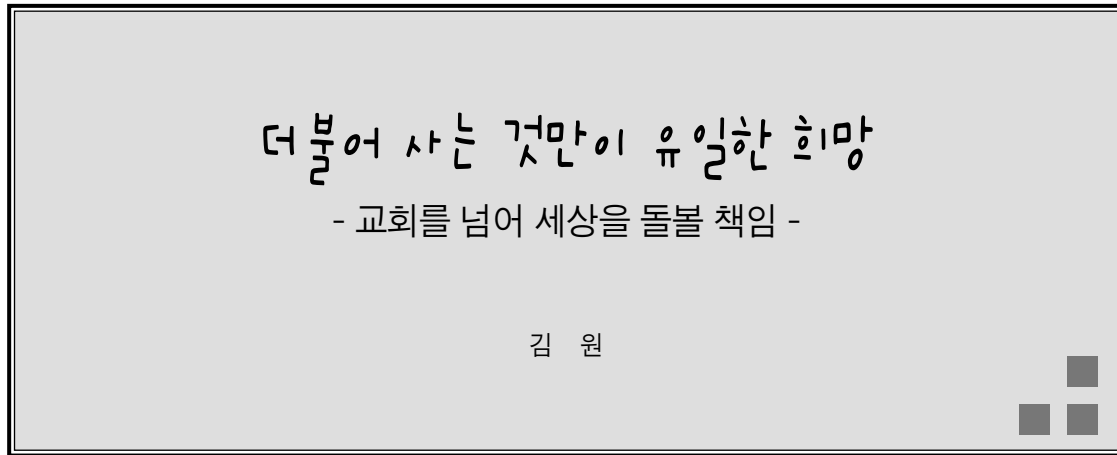
## 세상 속 성탄 꾸미기

- 더불어 사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 김원
- 클레이아트로 전하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 양영미
- 성탄 연극 도우미 홍선준·백지영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아진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예수님께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는 아기 예수님을 맞을 준비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실었다.

‘**더불어 사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에서는 성탄을 맞아 이웃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을 가꿀 수 있게 안내했다. ‘**클레이아트로 전하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서는 일상에서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묵상할 수 있게 구유 리스를 만들어 보았고, ‘**성탄 연극 도우미**’에서는 성탄 행사에 빠지지 않는 연극에 필요한 간단한 의상 만들기 방법과 분장법을 소개했다.



어디에도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완전한 몰락의 시대를 살고 있다. 모든 화려하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며 실은 속 빈 강정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거품’으로 빛어낸 투기 자본의 세계가 말짱 사기나 다름없었음을 전 세계가 뒤늦게 목도하고 있다. 미국을 아니 월가를 믿고 추종했던 나라들의 연쇄 부도가 우려되고, 어설픈 경제학 용어에 홀려 뺨 빠지게 모은 돈을 날린 ‘개미’들이 겨울 문턱에서 울부짖고 있다.

숫자 놀음으로 공중분해 당한 돈들은 사실 진작부터 돈이 아니었다. 망상과 이기심의 산물이었다. 돈은 원할 때 찾아 쓸 수 있어야, 내 주머니 속에서 실물로 만져져야 ‘돈’이다. 숫자가 무책임하게 뺨튀기 되고 있는 동안, 추락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하지 못했다.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손쉽게’ 가만히 앉아서 이스트 넣은 빵이 부풀어 오르듯 돈이 불어날 수 있다는 발상은 근본적으로 최악이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도 ‘계산’은커녕 무턱대고 덤벼들었다. 나만 뒤쳐질 것 같은 불안감에 막차가 더 인기였다. 일명 문지 마 투자 심리의 정곡을 찔렀기 때문이다.

**혹독한 겨울이 오고 있다**

지난 해 이맘때 세상을 온통 뒤흔들던 단어는 ‘경제’였다. 지난 가을과 겨울, 거리는 ‘경제 대통령’

구호와 가요 ‘거위의 꿈’ 멜로디로 넘쳐 났다.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논리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상 열풍으로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니, 당연히 국정 수행에도 논리와 상식이 통할 리 없다. 그런데도 다들 희한하게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지도자께서 잘 살게 해 주실 거라는 전근대적 기대가 아직도 먹힌다. 여당은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참패하지 않았다. 게다가 대통령과 정부가 강력하게 ‘제정일치’를 꿈꾸며 특정 종교 전도에 열 올리고 있다. 특정 종교를 믿는 특정 교회 신도들이 대한민국의 돈과 권력을 ‘사이 좋게’ 나누는 가운데 1년이 흘렀다. 임기 5년 중 초반 1년을 그렇게 살았다면, 향후 행보는 안 봐도 뻔하다. 이미 부자인 사람들이 더욱 부자가 되기 위해 법을 바꾸고 정책을 손보는 공화국, 그곳에서 가난한 사람은 지붕마저 날아간 집에서 겨울을 맞아야 한다.

한국인의 인격마저 바뀌버렸다는 ‘IMF 시대’가 재현될까 다들 두려워하고 있다. 그 고통의 시절을 겪으며 우리는 함께 나누고 도우며 산다는 오랜 미덕을 잃었다.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곧 감원이 돼 버린 시대에 동료는 더 이상 ‘같이’ 갈 사람이 아니다. 누구는 밥줄이 잘리고 누구는 연봉을 더 올려 받는 야만적 셈법 앞에서, 다 같이 감봉하고 다 함께 일하는 상식적인 ‘구조조정’은 거의 채택되지 않는다. 원하지도 않는다. 자신만은 ‘잘리는’ 쪽이 아니라 승진하는 쪽에 설 것이라는 이기적 계산 때문이다. 아무리 잘리고 또 잘려 나가도, 잘린 이들이 노숙자가 되어 떠돌다 겨울을 채 나지 못한다 해도, 이 무한 경쟁에서 승리해 열매를 독식하는 이가 있다는 허풍이 성공 신화로 굳어져 있는 탓이다. 이 성장 없는 시대에 ‘독식’이야말로 곧 남의 밥그릇을 빼앗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

**‘거위의 꿈’에 담긴 슬픈 예언**

지난 대통령 선거의 최고 히트곡은 인순이의 ‘거위의 꿈’이었다. 대세론이 일찌감치 자리를 굳히면서, 다른 후보들은 그야말로 ‘군소’ 후보가 되었고 그래서 한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판에서는 ‘거위의 꿈’을 마치 자신들의 심경을 대변하는 곡처럼 틀어 댔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는 선거 결과를 정리하면서, 방송에서 이 노래를 수도 없이 흘러보냈다.

갈라졌던 표심을 수습하고 ‘위로’하는 데 최적의 노래라는 판단에서였을 것이다. 30%의 지지자가 대통령을 만들어냈으니, 단순 수치로 보면 국민의 70%는 이 노래에 감정 이입한 셈이다. 물론 가수 인순이의 ‘거위의 꿈’은 참으로 감동적인 노래다.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적절한 위안과 함께 잊혀진 ‘꿈’까지 불어넣어 준다. 그러나, 나이 오십 줄의 산전수전 다 겪은 ‘국민가수’ 인순이가 날지 못하는 거위에 बैठ ‘꿈’을 노래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비판적이다.

이십대 푸르른 청춘이던 이적과 김동률이 1997년 세상에 발표했던 ‘거위의 꿈’은 그 나이의 감수성과 고민을 잘 보여 주었다. 설익은 목소리와 감상적이기까지 한 내면 고백, 비장한 다짐이 아름다웠던 이유다. 청춘의 노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년의 노래는 어딘가 ‘번지수’가 틀렸다. 세상이 ‘끝이 정해진 책’이며 ‘헛된 꿈은 독’이라고 말하는 기성세대를 향한 저항감은 물론, ‘뜻 모를 비웃음’을 등

뒤로 흘러며 꿈의 주소를 다져야 하는 것은 젊은이들의 몫이다. 삶이 안정된 궤도에서 돌고 있고, 그동안의 노고에 어느 정도는 행복해져야 마땅할 중장년의 몫이 아닌 것이다. 중년의 가장과 애 엄마들에게, 손에 쥘 것 없어도 ‘꿈’만으로 살아 보라는 것은 부조리한 비극의 강요다. 이는 ‘독’과 ‘비웃음’ 속에서 여전히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거위’들의, 대한민국의 자화상이었다.

### 교회는 할 일을 하라

한동안은 일요일 오후 여의도 주변을 걸을라치면 한 교회 신도들의 낭랑한 외침이 들려오곤 했다.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처음에는 무슨 신제품 판촉인 줄 알았다. 귀를 의심했다. 그 상냥한 한 마디가 전하는 강렬한 메시지는 소름끼쳤다. 그렇다. 어쩌면 그 말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본심’ 인지도 모른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교회마저도 숨기지 않는다. 물신(物神)을 가장 경계해야 할 종교가 물신을 전교의 도구로 삼고 있다. 교회 자체가 물화(物化)돼 버렸다는 증거다.

더 이상 종교는 은유가 아니고 사상이 아니다. 이미 형이상학의 영역에 있지 않다. 조금의 은유나 예누리도 없는 직설화법은 누구나 ‘소망’은 부자 되는 것뿐이라는 단언의 결과다. 부자가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복음 말씀이나 산상수훈 따위는 이제 설 곳이 없다. 예수라는 이름은 이제 ‘처세’의 대명사로 쓰이고 있다. 현재 부자와 권력자의 역할모델이 된 실체들은 다 크리스천이다. 방송에 얼굴 많이 내미는 연예인일수록 기독교인임을 강조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 정부 인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기독교 전성시대’를 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성의 60% 이상이 자신을 ‘하층민’으로 분류하고 있다니, 교회가 위안이 되지 못하고 눈물을 닦아 주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이 오고 있다. 서로 제 몸처럼 돌보는 것 말고는 이 겨울을 이겨 낼 재간이 없어 보인다. 국민 대다수가 ‘내가 불우 이웃’이라는 자괴감에 빠져 있다. 매일의 장바구니를 걱정하는 마당에 누구를 도울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자선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냉기만이 가득하다고 한다. 정작 그럴 때 교회가 ‘사랑의 실천’을 크게 외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돕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

김원.로사  
문화평론가.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와 월간 「성서와 함께」, 월간 「말」에 문화 칼럼을 쓰고 있다.